



남양주소방서 소속 박프정 소방사 /경기도소방재난본부

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, 전날 오후 6시 52분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청계3터널 성남방향 92m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K7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. 발화 차량 차주가 신고한 것이다.

3분 뒤 흰색 반팔티에 반바지 차림을 한 20대 남성이 현장의 터널 내부 옥내소화전 2개소에서 소화 호스를 꺼내 들고 진화에 나섰다. 그는 가까운 소화전을 열어 호스를 꺼내 신고자에게 건넨 뒤 자신은 다른 호스를 들고 불이 붙은 보닛 근처로 다가가 진화했다. 엔진룸에서 발생한 주불은 3분 만에 꺼졌다. 곧이어 의왕소방서에서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1명이 출동했고, 오후 7시 10분 불은 완전했다.

# 터널 소화호스 꺼내 차량 불 끈 반바지男, 비번 소방관이 었다

입력 2023.06.19. 오후 3:35 · 수정 2023.06.19. 오후 3:53 기사원문

김명진 기자

531

158

🔊 🔍 📄 📌

터널을 주행하던 K7 차량 엔진룸에 돌연 불이 났다.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터널 내 차량 화재 사고였다. 불은 터널 내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한 20대 남성 덕분에 조기에 마무리됐는데, 이 남성은 비번날 현장을 지나가던 남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다.



18일 오후 6시 52분 경기 의왕시 청계3터널 내부를 달리던 K7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남양주소방서 박호정 소방사가 옥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진화하고 있다. /경기도소방재난본부

초동 대처에 나선 시민은 남양주소방서 오남119안전센터 소속 박호정(29) 소방사였다. 박 소방사는 "소방관이라 그런지 화재 현장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"며 "터널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"이라고 전했다.

김명진 기자 [cccv@chosun.com](mailto:cccv@chosun.com)